

서울도시공원의 장소적 재현 연구

- 기념성, 상징성, 장소기억을 중심으로 -

한소영* · 조경진**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I. 서론

우리나라의 공원 변천 역사에 대한 반추는 공원이 도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위치하는 의미에 비해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물론 지금까지 서울 공원 녹지 등에 관한 연구는 조경학뿐만 아니라 행정학, 지리학, 도시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주로 공원녹지 정책이나 법제, 혹은 이용 후 평가와 관련한 한정적인 주제가 주를 이루어 왔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공간 및 장소를 다루는 도시나 건축 분야 등의 인접분야에서는 최근 들어 다양한 관점과 시각으로 현대 공간 및 장소사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고 있으나 조경 분야는 그렇지 못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문제의식들을 바탕으로 정책적 법제와 지적인 역사 사이에서 계획이론의 한 분야로서 '서울 현대 공원'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 보고자 함에 가장 큰 목적을 둔다. 또한 현재의 서울 공원들은 '조경학'이라는 학제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생겨난 것들이어서 그 조성 방법이나 조성 목적 및 시기 등 모든 요인이 파편적인 탓에 총체적 관점에서 파악하기 더더욱 힘든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서울 근·현대 공원을 하나의 일관된 관점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이를 수반하기 위해 서울에 위치한 대부분의 공원들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공원 원래 기능¹⁾과 목적에 부합하지는 않은 장소적 재현 요소들을 설계 언어로 차용하고 있다는 가설을 전제로 시작한다.

여기에서의 재현 요소들은 "어떤 재현 대상의 '기념성(Monumentality)', '상징성(symbolism)'을 위한 구형 요소" 또는 "대상지 자체의 '장소기억(Place Memory)', 즉 한 장소의 역사적 흔적을 드러내기 위한 장소적 재현 요소"들을 일컫는다. 또한 이 가설은 서울의 공원 조성이 개방이후 우리나라가 겪은 정치 및 사회적 격변의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에 기인함을 전제하고²⁾, 때문에 재현 양상이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나리란 가설 역시 전제한다.

다만 연구 범위와 관련하여 서울시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공원들 중 근린공원들과 도시 공원들 위주로 살펴 볼 것이다. 연구자의 한계로 인하여 모든 공원을 다루지 못하는 탓에, 시기별로 몇몇 공원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장소적 재현과 기념성, 상징성, 장소기억

1. 기념 및 상징성과 재현

현실 장소에 재현된 기념 및 상징 혹은 어떠한 이미지는 가상공간에 비해 지속성과 현시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창출된 전통과 영웅적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흔적 및 기억이 이용되며, 다양한 방식으로 특정한 장소와 공간에 상징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널리 인지시키는 형태로 등장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행태가 주로 '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현장소' 혹은 '재현 공간'은 이데올로기가 투영된 기념비적 장소를 일컫는 용어로 흔히 사용되며, 사회학이나 지리학에서 다루지는 경우가 많다. 정호기는 재현장소에 대한 해석은 크게 미학적 관점에서와, 정치적 의미 해석에 관련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정호기, 2002: 33). 여기에서 미학적 관점은 설계언어와 관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건축과 조경 분야에서 많이 행해지는 분석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재현장소에 관한 논의 대다수는 재현장소를 사회·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본 것들이다. 또한 이는 기념물 및 조형물을 포함한 재현장소 전반에 대한 논의와, 기념 조형물 자체에 보다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가 진행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주로 후자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있다. 사회 및 정치적 관점에서 분석이 행해지는 경우 기념비가 어떤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기념 조형물에 연구의 힘이 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념은 슈바르츠(Schwartz)가 정의한대로 "과거에 대한 상징적 표상체계가 작동함을 말하는 것으로, 일종의 기억 네트워크"를 이루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Schwartz, 1997: 472). 한편 강혁은 "기념비는 동일화와 설득의 도구일 뿐 아니라 지배와 억압의 도구라는 두 얼굴을 지녔던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분석은 기념이라는 개념을 전자적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강혁, 2001: 83).

또한 코스하르(R. J. Koshar)는 장소 재현 과정을 기념물

이 언제 세워지며, 어떤 역사적 사건을 담아내는가, 그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이 어떻게 이용되는가를 사회사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고찰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장소 재현 과정에서 이와 관련되는 다양한 기념물들이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상징화하여 건립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정호기, 2002: 30). 이는 재현장소의 조성과정에서 어떤 기억 및 상징 투쟁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이다.

2. 장소기억과 재현

또한 장소 재현 과정의 분석은 한 시대의 '기억 공동체'와도 관련된다. 슈바르츠(Schwartz)는 기념의 장소재현이라는 상징적 행위 과정을 통해 기억주체들이 과거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고 마침내 하나의 기억공동체를 설립해내는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다룬다(김영범, 1998: 183). 더불어 기억공동체는 집단적 기억과도 관련된다(정근식, 1995).

최근 들어 재현장소에 관련된 연구는 기억과 기념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기념비적 건축과 조형물 그리고 장소 및 공간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Johnson, 1995: 53-54; Withers, 1996: 326), 기본적인 질문은 누구에 의해 왜 이러한 것들이 등장하며, 이러한 공간들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는가와 연관 된다(정호기, 2002: 29).

특히, 장소기억과 관련하여 키케로(Cicero)는 기억의 배열과 재발견을 위한 수단으로 장소가 지닌 중요성을 강조할 뿐 아니라 장소 자체에 내재한 '위대한 기억의 힘'에 대해서도 언급한다(Cicero, 1989: 394)³⁾. 또한 알라이다 아스만(Aleida Assmann)은 문화적 기억의 매체로서 문자, 그림, 몸에 이어 장소를 들고 있다. 장소는 기억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장소 안에 기억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이야기 한다. 따라서 아스만은 "장소들이 기억의 주체, 기억의 버팀목이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 인간의 기억을 초월하는 기억을 제공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 한다. 또한 설령 장소가 고유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것은 문화적 기억의 공간들을 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Assmann, 1999: 391-392). 왜냐하면 장소들은 회상을 구체적으로 지상에 자리매김하면서 단기적 기억을 증가하는 지속성에 있어서 어느 다른 매체보다 더 월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장소기억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났다4). 이러한 관심은 거대한 스펙터클을 동원한 소비 공간의 생산과 도시공간의 전면적 재배치로 인해 파괴되는 장소의 기억과 역사성에 대한 문화학적 접근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

다(윤미애, 2007: 247). 때문에 장소기억과 관련하여 장소적 재현과 관련하여 조경 뿐만 아니라 도시 및 건축 등 여러 학계에서 다양한 접근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여러 장소적 재현은 항상 어떤 장소기억의 기원 및 원본에 가까워져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한다. 이는 어떤 시대의 장소기억이 재현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투쟁이 벌어지기 마련임을 뜻한다(강내희, 2000: 15). 이는 기억투쟁과도 관련된다. 셀비(Selby, 2001: 1)는 재현된 기억의 장소는 의도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타협된 과거를 공간에 담아내는 것이라고 한다. 저항적 기억을 갖는 집단들은 원래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지속적인 기억투쟁을 전개하려고 하나, 국가권력은 장소들을 해체하고 공원 혹은 기념관 등을 조성함으로써 타협된 기억의 장소로 귀착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즉, 여기에서 재현된 장소는 기억투쟁 타협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3. 장소적 재현 요소 및 장소적 재현의 사회학적 요인: 연구의 분석 틀

앞서 언급한 문헌자료에 기초하여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원들의 재현 요소들을 재정리하여 보면 표 1과 같다.

또한 분석의 체계화를 위해 장소적 재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을 앞서의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주로 사회학적 분석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들로, 공간적 재현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정치적 요인, 사회 조직적 요인, 경제적 요인, 그리고 문화적 요인들이다.

위의 흐름에 맞추어 분석은 그림 1과 같은 분석 인자들로 진행된다.

표 1. 장소적 재현 요소 분류

구분	세부항목
물리적 요소	기념비, 조각물, 건축물, 수목, 기타
비물리적 요소	공원의 명칭, 공원의 위치, 공원 내 이벤트, 기타

표 2. 장소적 재현의 사회학적 요인

구분	세부항목
정치적 요인	- 정치체제 및 법률
사회·조직적 요인	- 재현 대상 및 재현 공동체의 존재 여부 - 재현 전문가 및 전문 설계가 선정
경제적 요인	- 예산의 확보 - 장소의 선정
문화적 요인	- 이전 재현장소의 영향 - 재현장소의 조성방식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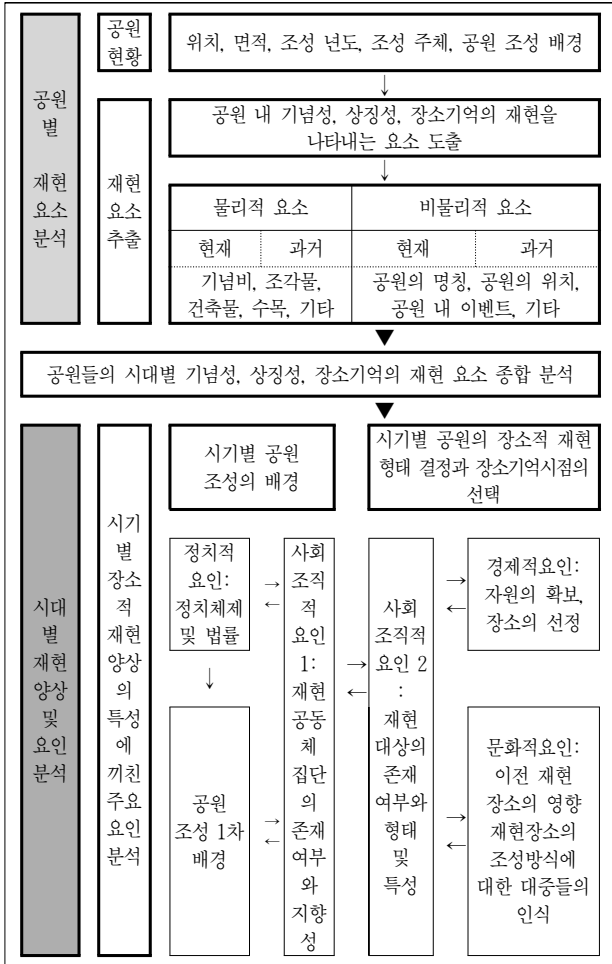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분석 틀

III. 서울 도시 공원의 변천과 장소적 재현

1. 일제강점기 및 1970년 이전: 장소기억의 소거와 상징 투쟁의 장으로서의 공원

서구의 공원은 초기에는 왕실의 정원을 일반 대중이 이용하게끔 하거나, 의도적으로 공공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였다. 왕실의 정원을 개조한 경우는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의 의미를 제거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이후의 대부분의 조성된 공원은 의미 있는 장소를 만드는 작업 이라기보다는, 의미 없는 공(空)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때문에 표면적으로 공원 조성 배경에는 정치적 요인이 많이 작용한 듯 보이나, 사회 조직적 요인이 공원의 장소적 재현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남산공원, 효창공원, 탑골공원의 조성과정을 살펴보면, 성스럽거나(the scared), 상징성의 의미가 재편되거나, 새롭게 부여되는 구도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서구의 공원이 담보했던 이상인 공공사회복지

시설로서의 공원이거나, 옴스테드가 주창한 민주사회의 장으로서의 이상은 도입되지는 않았다. 남산공원의 경우 일본 신사의 성스러운 장소를 조성하면서 장소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투영되었다.

독립공원의 경우 이와는 정 반대의 성격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희구하는 저항적인 장소의 성격을 지닌다. 독립 협회라는 뚜렷한 재현공동체가 존재했고, 이들이 민간이라는 점에서 이 시기가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공원 재현 공동체의 뚜렷한 대비가 나타나는 현상도 특별한 상황을 읽을 수 있다. 때문에 이 시기 조성된 공원들은 재현 공동체의 지향성과 그 힘에 따라 그 집단의 상징성 혹은 기념성을 나타내는 재현 요소들로 채워졌다.

더불어 식민 통치를 받고 있다는 국가 상황 상, 경제적 요인이나 문화적 요인은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경제적 요인에서 공원의 장소 선정과 관련하여, 상징적 의미가 많이 작용하였고, 이는 일제 치하에서 장소기억의 소거를 위한 목적이 많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현 장소의 선정과 관련하여 일제 강점기에서 혼란기까지는 기억 투쟁이 급격히 이루어지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보존형 보다는 개조형이나 창조형이 많이 선택되었다. 예컨대, 사직공원, 장충단공원, 남산공원의 변화, 궁의 공원화 등을 들 수 있다.

문화적 요인으로 전문적으로 설계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공원 도입 초기라 영향을 받을 재현장소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라는 한계가 있었다.

2. 1970년대: 전문 조경의 시작과 주제공원의 등장

1970년대에 조성된 공원들은 전문 조경의 도입과 함께 전문 설계가가 선정되어 공원이 조성되기 시작했고, 비슷한 형식의 주제 공원들이 만들어 지기 시작하면서 이전 재현 장소의 영향을 받아 공원이 조성되기 시작한다.

1973년을 넘기면서 본격적으로 공원이 조성되기 시작하는데, 초기에 조성된 낙성대공원은 정책입안자의 의지로 강감찬 장군의 유적지를 다듬은 사적공원이었을 뿐이며, 본격적인 근린 공원은 서소문공원, 도산공원과 자매공원이었다(최기수, 1994: 69).

또한 이 시기 조성된 공원들의 경우 시간이 지난 후에 재 조성된 공원들 또한 많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례 공원들 중 어린이대공원과, 서소문공원이 그 예에 속하며, 낙성대공원 또한 최근 재 조성 되었으며, 서울대공원도 재 조성을 앞두고 여러 과정 중에 있다. 물론 재조성의 1차적 목적이 시간이 많이 흘러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해야 함을 최우선에 두고 시대상을 반영하여 재 조성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당시와 지금 시민의 공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이 시기 유행 하였던 역사 체험물 배치 위주의 관광용의

공원보다는 실제적인 이용 대상으로서의 최근의 공원들이 시민들에게 큰 각광을 받는 것도 그 영향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정치적 이유에서 전시 행정의 일환으로 공원 재조성이 활용되는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소적 재현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적 요인은 여전히 크게 작용하지 못한다. 비록 전문 설계가가 등장하였지만, 전문 조경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미숙한 탓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전 재현 장소의 영향을 받아 시각적인 것에 치중하고 비슷한 형태의 공원이 많아 조성되는데, 예컨대 비슷한 형식의 다양한 역사 공원이 만들어 졌다. 또한 보편적으로 도산공원이나, 서소문공원에서 보듯이 주로 공원의 주용도 중 하나가 역사 체험을 꼽을 정도로 다양한 역사 관련 상징물을 놓는데 치중하였다. 이는 이 시기 조성된 공원들의 경우 재현 공동체 집단이 존재하더라도, 대상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도 많았던 것을 통해 서도 알 수 있다. 상징적 의미는 많이 감소하였으나, 기념물의 형태가 많이 등장 하였고, 앞서 이야기 하였듯이 주로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물리적인 형태가 많았다.

어린이대공원이나 서울 대공원 같이 역사는 주제를 넘어 보다 여가 공원 위주의 재현 대상을 놓고 대규모 놀이 공원들이 이 시기에 만들어 지기도 한다. 하지만 조성 원인들을 살펴보면 재현 대상을 구현하기 위해 공원을 조성하게 되었다기 보다 여러 정황들로 인해 공원 부지가 선택된 후 재현대상이 정해지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공원 내 재현물의 장소 선정에 있어 대상지 이전의 장소기억과 관련이 전혀 없는 창조형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았다.

3. 1980년대: 대규모 국가 행사(Mega Event)와 기념 공원

손정목은 우리나라의 역사상 올림픽과 아시아 게임을 앞 둔 1982~85년의 4년간만 큰 현상설계라는 것이 많이 실시된 시대는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손정목, 2003: 54).

따라서 앞서 살펴 본 공원 사례들은 198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함께 국제화의 흐름에 부응하여 조성된 기념성을 지닌 도시공원들로 그 설계 내적인 면에서의 혁신성 보다는 존재 가치로서 의미를 지니는 공원들이다. 예컨대 아시아공원과 올림픽공원의 경우 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 등의 대공원들이 조성된 바 있음에도, 아시아공원의 경우 처음 현상 설계가 진행되었던 공원이었다는 점, 올림픽공원의 경우 근대적 조경기법의 체계적 적용에 의해 탄생된 최초의 초대형 도시공원이었다는 점에서 각각 첫 번째 의의가 있다(김한배, 2006: 294-295).

이러한 기념공원들의 경우, 설계 기법으로 '축'을 많이 활용

하였으며 공원 설계에 못지않게 대표적 기념물, 상징물 건립이 커다란 관건이었는데, 여기에는 형태를 비롯하여 크기가 중요한 요소였다. 또한 직접적인 형태인 기념물, 상징물을 넘어 파리공원에서처럼 다양한 설계기법을 통해 기념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 조성된 많은 기념 공원들은 각자 규모도 다르고 그 위치적 조건도 다르다. 하지만 조성 목적이 유사하면 공원 형태도 비슷했던 이전 시대와 달리 이들의 공원은 각각 설계자들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각각 다르게 장소적 가능성을 추구했다. 때문에 각각 다른 방식으로 그 기념성과 장소성이 구현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공원 텍스트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은 1980년대에 만들어 졌음에도 아직까지 시민들에게 여전히 사랑받는 공원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시기부터 재현 공동체의 존재 여부나 성향 등, 조성 배경에 있어서의 사회 조직적 요인은 크게 작용하지 않고, 직접적인 장소 재현과 관련하여 현상설계의 등장에 힘입어 전문가 설계가의 의지가 직접적인 요인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는 당시의 구체적인 장소 재현 방식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이 전의 기념비, 조각물 등의 부분 시각적이고 물리적인 형태로 재현 대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던 이전과 달리, 파리공원과 같이 대상지 전체를 활용하거나 울림뜰공원과 같이 장소기억을 최대한 살리는 식의 설계 기법이 도입된다. 하지만 양재시민의숲과 같이 기념박물관식의 공원으로 여전히 조성되던 시기였다.

이용자 측면에서도 1970년대와 더불어 공원의 대한 인식이 전환하는 일종의 과도기라고 할 수 있으나, 이용자의 참여가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프로그램의 도입은 미숙한 단계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가 행사를 앞두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 정치적 요인과 예산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도 많이 작용을 하게 되지만, 장소 선정은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4. 1990년대: 도시 삶의 질 제고, 공원의 양적·질적 확대

1990년대에 들어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공원은 이전부지의 공원화와 관련된다. 이전부지의 공원화는 1980년대부터 있었던 일로 당시 학교나 시설 이전 부지를 공원화하기 시작하였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공군사관학교 부지에 조성된 보라매공원과 서울대학교의 이전으로 조성된 1985년에 조성된 마로니에 공원이다. 그 이후 1990년대에 들어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의 영향을 받아 OB공장의 이전지가 영등포공원으로 바뀐 예 뿐만 아니라, PILOT공장이 이전하여 천호동 공원으로 바뀌는 등 이전부지의 공원화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지만 공원 설계의 결과물은 영등포 공원의 예에서처럼 미흡한 면이 있었다⁵⁾.

장소재현 요인과 관련하여 이 시기는 공원 조성에 있어 양적 증가 배경에는, 민선시장 출범과 함께 1996년에 제정된 “공원 녹지확충5개년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치적 요인을 배제 할 수 없다.

하지만 이전 공원들의 설계 패턴도 유지되어 오고, 양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공원 조성에 있어 장소적 재현은 복합적 양상을 띠게 된다. 따라서 장소 재현 현상이나 요인 모두에서 이 시기를 대표할 만한 특성을 꼬집어 내기 힘들고, 때문에 어떤 요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 할 수 없다. 몇몇 공원들의 사례 공원만 보아도 이전에서처럼 공통분모 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양상을 띠는데, 이전의 양상이 이어져 오는 경우도 있었고, 새로이 나타나는 양상도 있었다.

예컨대 구암근린공원의 경우 선열주체의 공원으로서 상징성이 대표적 장소재현의 특성으로 나타나지만 비슷한 규모의 영등포공원의 경우 이전부지를 공원화 한 곳으로 장소기억의 특성이 대표적 양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대규모공원에 속하는 여의도 공원의 경우 기존 공원을 재 개조 한 곳으로, 장소기억, 상징성의 특성을 함께 나타내고, 비슷한 규모의 독립공원은 역사공원으로서 상징성, 기념성의 양상이 함께 나타난다. 이렇게 1990년대 조성된 사례 공원들은 과도기로서 기념성, 상징성의 혼재 양상이 나타나던 시기였다.

5. 2000년대: 장소기억의 재생, 공원 설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2000년대에 들어 조성된 대규모 현대 공원들의 경우 시공 초기의 단계부터 성숙기를 거쳐 장소기억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비슷하지만 각각 다른 스펙트럼을 나타내고 있다. 유사한 측면은 설계 방식으로 공원의 장소기억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안에서도 설계자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장소기억을 드러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들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장소기억 ‘드러내기’ 방은 크게 기존 장소의 ‘물성’을 드러내기, ‘시간의 층위’를 드러내기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완벽히 조화될 때, 우리에게 좀 더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느낌으로 장소성을 살린 형태로 나타나 보이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앞서 이야기한 선유도공원이다. 이는 시간의 층위가 나타내는 물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한 예이다. 설계자가 설계 당시의 의도하여 드러내고자했던 시간의 지층을 이 층위가 보유하고 있던 물성을 통해 그 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감각적으로 잘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드러내고자 하는 부지의 물성과 시간의 층위는 설계자의 주관이 투영된 것이기에 객관화 시킬 수 없는 무엇이다. 다시 말해 설계 이후 그 부지의 장소성을 최적화 시킬 수 있는 요소를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설정되게 된다는 것이다. 그 판단은 당시의 사회

상황이나 문화 취향 등이 고려되어 정해지는 속성을 지닌다.

두 번째로는 하늘공원과 같이 부지의 기존 장소의 부정적 이미지를 지워내야 하는 경우 의도적으로 그와 상반되는 이미지로 새로운 장소성을 만들어 내는 방식이다. 가시성, 즉 장소의 가독성을 구축하여 줌으로써 방문자들에게 강한 인식을 남기고, 그들에게 새로운 장소기억이 축적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이는 1970년대에 흔히 사용되었던 기존의 장소기억을 완전히 지우기 위해 사용되었던 방법과도 다른 방식이다. 기존의 장소성을 가리지만 다른 소재와 설계 기법을 이용하여 가려야 할 이미지를 최대한 드러내는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서울숲과 같이 시민참여의 가능성을 이미 설계 당시부터 열어둔다는 점이다. 이는 물리적 형태를 이용하여 참여자를 끌어들이는 것을 넘어서 비가시적 형태의 참여 방안을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장소 이미지를 체화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시기에 들어서는 장소적 재현 요인에 있어 정치적 법체제 등의 정치적 요인 보다는 문화적 용인이 크게 작용하기 시작하는데, 이전 장소 재현 방식의 영향을 많이 받기 시작했고, 전문 설계가의 역할이 이전에 비해 가장 큰 작용을 하게 된다. 또한 전문 설계가는 장소기억의 재현 방식에 있어 경제적 요인 중 대상지 선정과 관련하여 이전에 주로 택해졌던 창조형 보다는 개조형이나 보존형의 방법을 택하게 된다. 이용자 참여가 강조되기 시작한 시점인 탓에 사회조직적 요인에서 재현 공동체가 존재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재현 대상도 대상지 장소기억과 관련된 ‘부지’ 자체인 경우가 많았다.

즉 여의도공원을 비롯하여 일반적인 공원 설계에서 항상 빠지지 않았던 정자나 방지, 전통 마당과 같은 대상지와 관련 없는 창조형 설계 재현 요소 들이 선유도나 서울숲 등 앞서의 사례 공원들의 조성을 기점으로 역사, 기억, 재생, 맥락과 같이 그 부지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강조, 즉 개조형이나 보존형 방법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상민, 2006: 133).

IV. 서울 도시 공원의 장소적 재현 양상

앞서의 분석들을 바탕으로 개괄적으로 서울에 조성된 공원들이 기념성, 상징성 및 장소기억이란 주제로 어떻게 재현되어 나타나고 있는지 크게 유형화 하여 볼 수 있다.

먼저 조성 목적에서부터 기념성을 띠는 경우와 애초 기념 공원 조성이 목적이 아니었으나, 기념비적 의미가 드러난 경우로 나눈다. 이들은 다시 각각 세분화 되는데, 전자의 경우 국가적 수교나 대형 행사(Mega Event)를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공원과 들과 위인들이나 대상지가 지니고 있는 이전의 기억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공원으로 나눌 수 있다. 후자는 조성 목적과 관계에서 어떠한 기념 및 상징성의 의도적이나 비의도적으로 투영된 경우로 이는 공원이 완전히 조성된 후 상징물들이 추가

되면서 기념성이 더 입혀진 경우와 조성되기 전에 설계과정에서 설계자 자체적으로 대상지 장소의 기억을 기념하기 위해 여러 장치물들을 쓴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특히 도산공원과 구암근린공원과 같이 인물을 재현 하는 공원들의 경우 대부분 교육과 계승 및 휴식이라는 요소가 복합적으로 구현되는데, 상징물 중심의 재현장소와 기념관 중심의 재현 장소로 분류된다.

또한, 앞서 살펴봤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개방 당시의 시대 상황과 맞물려 도시공원 도입에 있어 서양과는 주로 다른 요인이 작용하였다. 서양의 경우 '조경'이라는 커다란 틀에서 볼 때 서구에서 공원은 산업혁명과 도시화의 악영향이었던 도시 위생문제에 대처하고 노동계층의 여가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한 개념으로 시작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이전의 조경은 대개 사적인 조원행위에 국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공원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의 공원은 사회적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조성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는 주로 공원을 만들으로써 그 일대 경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경제적 요인과 관련이 깊었다.

현대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 초기부터 이와는 다른 요인이 주로 작용하였다. 일제 강점기에서 서울의 공원들은 일제 치하를 기념하거나 혹은 우리의 상징적 장소들을 해체하고 그들의 상징물들로 채워 놓기 위해 한편으로 상징물의 전시장 같은 곳으로 주로 만들어졌고, 여러 번 국가 권력자가 뒤바뀌는 상황에서 특히나 서울의 주요 공원들의 경우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 민선 시장이 출범, 시민들의 공원에 대한 의식 변화, 전문 공원 설계가의 양성으로 인한 해외의 여러 공원들의 설계 사례에 대한 영향 등과 같은 요인들이 맞물려 최근에 들어서는 과거 공원 부지를 기억하고 이를 드러내기 위해 여러 가지 재현요소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재현 양상과 요인들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의 초기 공원에서 흔히 보이는 어떤 기념 및 상징을 위한 재현 장소를 만들고 상징물을 건립했던 행위는 최고 권력자가 국가적 망각 혹은 무 기억 전략에 맞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며, 어떠한 사건의 흔적을 공간에 투영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는 점이 컸다.

외면적으로는 장소적 재현의 사회학적 요인 중 정치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한 편으로 독립협회 등과 같이 뚜렷한 당대 최고 권력의 저항공동체가 장소적 재현을 추진하는 경우, 정치적 요인 보다는 내부적으로는 세력의 결집과정이었으며, 외부적으로는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의 일환이었으므로 사회 조직적 요인이 더 큰 작용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정치적 상황에서 군사정권 시기라고 볼 수 있는 1970년대에서 1980년대는 공원 조성에 있어 일종의 과도기로 시기별 재현 양상과 요인 모두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1970년대에는 여러 주제 공원이 등장하기 시작함에 따라, 각 공원의 주제에 부합하여 공원 설계 재현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이식에 조성된 주제공원은 크게 위인 등의 인물, 혹은 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과 같이 테마 공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1980년대에 들어서는 국가의 여러 대규모 행사(Mega Event)기념 공원이 많이 조성 되는데, 이러한 기념 공원들의 장소적 재현에 있어 1970년대부터 양성된 설계 전문가들이 영향을 끼치게 된다.

셋째, 1990년대를 넘기며 현대 조성된 공원들 내 재현 장소에 투여된 장소기억은 다양한 기억의 흐름들 가운데 조성자 혹은 전문 설계가에 의해 선택 혹은 타협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전문 설계가의 역할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00년대 이전의 경우 장소기억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대상지의 가장 최근 기억들과 사진들에 대한 망각 현상을 동반하기 위해 오랜 과거의 기억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 후에는 장소의 가장 가까운 기억을 새롭게 재현함으로써 오히려 공원으로 변화된 장소의 긍정적 이미지를 극대화 시키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한다.

또한 재현 방법에 있어서도 2000년대 이전에는 영등포공원의 순동계 담금술과 보라매공원의 에어파크(Air Park)처럼 단순한 하나의 오브제로 장소기억을 드러내는 수법을 많이 썼으나 이 후에는 공원 전체에 일정 시기 장소기억을 공원의 형태로 코디네이션이 되는 양상을 띠기 시작한다. 이는 장소적 재현의 사회학적 요인 중에서 문화적 요인 중 이전 재현장소의 영향과도 관계가 있다. 즉, 선유도공원 이후에 비슷한 양상으로 장소의 기억을 재현 하는 형태의 설계가 유행하기 시작했으며, 이 역시 애초에 외국에서부터 유행 했던 것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울숲의 경우 당시 이미 보편화 되어 있었던 기존 장소기억을 드러내는 설계 기법을 차별화하기 위해, 참여를 강조하는 설계기법을 도입하여 새로운 장소기억을 구축하기 위한 틀로 마련하는 방법도 마련하였다.

경제적 요인 중 재현 장소의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초기에 창조형이 선택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장소기억을 드러내기 위한 보존형의 방식이 많이 선택되었다. 반면, 역사공원의 경우 일제 초기 정치적 격변기를 겪으면서는 기억투쟁과 관련하여 창조형이 주로 선택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개조형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공원 조성 주요 요인의 변화와 관계하여, 이상민은 조경설계기법의 변화 역시 점점 복잡한 형태로 진화하였고(6), 이를 1980년대부터의 현상 설계 변화의 양상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1980년대의 현상설계에서 조경 부문은 주로 대규모 도시 기반시설이나 단지 계획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조경 중심의 현상설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표 3. 서울 도시 공원 재현 양상 흐름

시기 구분	공원 조성 주요 요인	장소적 재현 양상의 주요 요인	장소적 재현의 주요 키워드
해방~1960년대	법 체제의 변화, 권력집단의 의도 (1)	정치적 요인	상징성 ↓ 기념성 ↓ 장소기억
1970년대	법 체제의 변화, 권력집단의 의도 (2)	정치적 요인	
1980년대	대규모 국가 행사	경제적 요인, 사회조직적 요인	
1990년대	대중들의 공원에 대한 인식 변화, 법 체제의 변화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2000년대	복합적 요인	사회 조직적 요인, 문화적 요인	

조경 관련 현상설계의 규모가 커지고 그 내용도 복잡해져 다양한 분야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상 설계의 수도 급격히 많아진 탓에 공원 조성 및 설계에 있어 좀 더 복합적인 양상을 띠는 것이다(이상민, 2006: 132).

V. 결어

우리는 서울에 존재하는 공원들에 관상의 목적을 띠고 있는 아닌, 위인들의 동상들이나 기념비 등 유달리 재현 요소들이 많이 배치되어 조성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대에 조성 되어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공원들 대부분은 국가적 행사를 기념하면서 조성된 대규모 기념공원이거나 주재공원 등으로 휴식, 산책을 벗어난 커다란 테마가 부여된 공원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이와 관계없이 가장 최근에 조성되어 사랑받고 있는 대규모의 공원들은 과거에 조성된 공원들과는 분명 다른 양상들을 띠고 있다.

그렇다면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서양의 공원의 양상들과 조금씩 다른 결을 지니고서 우리나라의 공원들이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다면 어떠한 양상을 띠고, 그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본 연구는 근대에 들어 만들어 지기 시작한 우리나라 서울 도시 공원의 조성과 관련한 제 전반의 사항들이 어떤 흐름으로 변화해 왔는지를 고찰하기 위함을 가장 큰 목적을 두나, 앞서와 같은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기 위해 시작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공원'의 최초 도입 시기가 일제 강점기였다는 점, 또한 그 역사가 길지 않다는 점, 그마저도 여러 정치적 격변을 겪으며 일반적으로 외국에서의 공원 역사와는 결을 달리해왔다는 점을 전제하고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전제의 요인을 살펴하기 위해 개방에서부터 1960년대까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로 시기를 구분하고 시기별로

조성된 대표적 공원들을 추출한 다음, 각 공원들의 재현 요소를 살펴보고 시기별로 재현 양상의 특징을 파악한 후 그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사항들이 우리나라 전체 공원사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단정 지음에 있어 시대 구분 및 시대별 공원 표본 추출에서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체제 및 객관적 사료에 근거한 통시적 해석을 넘어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나라 서울의 공원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그간 관심이 부족했던 몇몇 근린공원까지 포함하여 살펴 봄으로써, 이들 공원들 역시 대규모 공원들과 비슷하게 당대의 사회·문화·정치에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했다는 점 등을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하겠다.

- 주 1. 여가공간으로서 공원의 사회적 기능을 연구한 송영일은 기존 문헌 고찰을 통해 공원의 일반적 기능을 생태적·환경보전적 기능, 도시미의 기능, 방공·방재적 기능, 여가·오락 공간으로서의 기능,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 제고기능 등으로 구분한다(송영일, 1997: 16-19).
- 주 2. 박인제는 서울의 도시공원 변천요인은 정치적 상황에 기인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연구함에 있어 정권 별로 구분하여 연구한다(박인제, 2002).
- 주 3. 키케로는 "장소에 내재되어 있는 기억의 힘은 위대하다"는 표현으로 직설적으로 언급한다(Cicero, 1989: 394, 윤미애, 2004: 528에서 재인용).
- 주 4. 윤미애는 장소의 기억과 관련되는 이와 같은 논의들은 최근 우리나라의 역사도시탐방이나 서울산책에 대한 관심들을 떠올리게 한다고 이야기 한다. 또한 이와 같은 관심들은 기능공간으로 전락한 서울을 어떻게 문화적 기억의 장소로 회복시키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깔려 있고, 그러한 노력의 결산이 2005년을 전후해서 발표되기 시작한 학자들의 서울이야기들이라고 말한다(윤미애, 2007: 230).
- 주 5. 배정환은 1996년 '공장 및 시설 이적지 공원화 사업'에 따라 각각 1998년에 개장한 천호동 공원과 영등포공원, 또 삼익약기 공장부지의 성수동 공원, 성진유리공장 부지의 매화공원을 예를 들어 조경가 의식 부재와 디자인 언어의 빈곤함이 만들어 낸 '틀에 박힌 공원'이라 비판한다(배정환, 2000: 115-130).
- 주 6. 1990년대까지는 현상 설계안들에서 형태에 대한 집착을 많이 보였으나, 점점 그 보다는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형태로 변화하였고, 시간과 사건에 대한 설계에서의 접근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상민이 여기서 일컫고 있는 시간은 필자가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설계 기법에 있어 '장소기억'의 층위 드러내기와 같은 맥락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다(이상민, 2006: 130-131).

인용문헌

1. 강내희(2000) 재현체제와 근대성-재현의 탈 근대적 배치를 위하여. 문화과학 24: 15-38.
2. 강혁(2001) 기념비석과 기념비주. 이상건축 2001(3).
3. 김영범(1998) 집합기억의 사회사적 지평과 동학. 사회사연구의 이론과 실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4. 김한배(2006) 디자인을 넘어선 디자인. PAK SCAP: 한국의 공원. 환경과 조경.
5. 박인제(2002) 서울시 도시공원의 변천에 관한 고찰.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 배정환(2000) 기억의 상실: 공장 및 시설 이적지 공원화사업에 대한 비평. 조경과 비평: Locus 2. 조경문화: 115-130.
7. 손정목(2003) 서울도시계획이야기 5. 서울: 한울.
8. 송영일(1997) 여가공간으로서 공원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 서울시 공원의 전개과정과 현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9. 윤미애(2004) 도시 산보와 기억 '해월의 『베를린에서의 산보』를 중심으로

- 로. 독어교육 29: 521-540.
10. 윤미애(2007) 문화적 기억의 공간과 서울이야기. 카프카연구 17: 229-251.
 11. 이상민(2006) 설계 매체로 본 한국 현대 조경설계의 특성 -현상설계 작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2. 정근식(1995) 집단적 역사 경험과 그 재생의 지평. 설화와 의식의 사회사. 문학과 지성사.
 13. 정호기(2005) 국민국가의 신성성과 '죽은 자 모시기' -국립묘지의 조성 과 유지를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36: 209-244.
 14. 최기수(1994) 서울의 룩과 曲.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15. Assmann, Aleida(1999) Erinnerungsräume. Formen und Wandlungen des kulturellen Gedächtnisses. München: C. H. Beck. 변학수 외(역), 기억의 공간.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3.
 16. Cicero(1989) De finibus bonorum et malorum: Uber das hochste Gut und das grobte Ubel, übers. und hg. v. Harald Merklin, Stuttgart.
 17. Johnson, N.(1995) Cast in Stone: Monument, Geography, and Nationalism. E.P.D. 13: 51-65.
 18. Schwartz, B.(1997), Collective memory and history: How abraham lincoln became a symbol of racial equality, The Sociological Quarterly 38(3).
 19. Selby, H. A.(2001) Social Memory in Argentina. 5.18 기념재단 초청 강연 발표문.
 20. Withers, C.(1996) Place, memory, monument: Memorializing the past in Comtemporary Highland Scotland. Ecumene 3: 325-344.